

## 일령별로 본 돼지설사증의 원인과 대책



돼지의 질병중에서 발병빈도를 기준으로 하면 설사증이 가장 높은 발병율을 보인다. 설사증의 원인은 돼지 자체의 여러가지 요인, 즉 병원성미생물 및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하여 발생된다.

설사병이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증세가 계속 진행되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설사증은 조기 발견하여 그 원인을 여러 각도로 찾아내어 환경조건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치료·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된다. 신생자돈은 체온 조절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여 외부온도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설사증에 대한 모체이행항체는 포유기간동안 서서히 감소한다. 또 소화흡수 기능이 미숙한 자돈이 사료를 먹기 시작하므로 설

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만돈사에 병원성 미생물 즉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로타바이러스, 유행성 설사증 바이러스, T.G. E 바이러스, 돈적리균, 클로로스트리디움균, 엔테로바이러스 및 원충등이 상존하고 있으면 설사증이 발생되기 쉽다.

그러므로 분만시부터 보온, 청결, 소독등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하여 설사 발생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돈 개체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주위환경이 위생적이라면 설사증의 발생없이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일령별로 설사증의 원인과 대책을 농장실정에 맞도록 분석하여 실제로 양돈농가의 설사증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7일령 이내의 신생자돈이 설사할 때

신생자돈이 설사하는 원인은 ① 병원성 대장균 감염 ② 모돈이 유방암에 걸려 젖의 상태가 나쁘거나 유량이 적을 경우 ③ 분만돈방의 경사가 불량하여 돈방에 오줌이 고여있거나 너무 습할 경우 ④ 초유급여가 불충분할 경우 ⑤ 초유급여시 부터 유방 주위가 불결할 경우 ⑥ 분만 모돈을 분만사에 너무 늦게 전입하여 분만준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만했을 경우 ⑦ 분만사 소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때 ⑧ 대장균증에 대한 항체가 낮은 초산돈이 분만한 자돈 ⑨ 난산으로 인하여 산후회복이 늦어졌을 경우등 원인을 여러각도로 추정하여 사양관리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신생자돈 설사증의 치료는 감수성이 우수한 항생제의 적량 투여, 전해질 제제의 음수투여, 소화제 및 생균제 급여등을 해야된다. 특히 신생자돈 설사증 치료시 사용하는 항생제는 가급적 각 농장에서 실험실로 병원성 대장균 항생물질 감수성 검사를 한번쯤 의뢰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성 대장균은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및 엠피실린에

## 이유전후 모돈에 사료를 줄여 주면 젖의 생산감소 및 젖의 성분변화가 일어나 자돈은 설사를 한다.

감수성이 높다. 항생물질을 규정량이상 과량 투여했을 경우 예상외로 치료가 잘 안 될 경우도 있다. 반드시 감수성 검사후 적정량을 투약해야 내성균 발현도 줄이고 과량 투약으로 인한 돼지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신생자돈 설사증의 경우 대장균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2. 15-25일령의 포유자돈이 설사할 때

이 일령의 자돈은 모돈으로부터 받은 이행항체가 소실되고 초이 급여용 사료를 먹기 시작하며 외부환경 변화도 심하여 설사가 발생된다. 이때 설사변은 대체로 회백색을 띠나 진행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치료방법은 항생제, 소화제, 전해질제, 유산균제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경구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증세가 심하면 겐타마이신이나 클로람페니콜제제를 근육주사해야 한다. 이때 모돈의 상태를 봐서 젖의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사촉진제 투여, 신선한 음수급여, 신선한 양질의 사료급여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 3. 이유전후의 자돈, 육성·비육돈이 설사할 때

이유전후 모돈에 사료를 줄여 주기 시작하면 젖의 생산 감소 및 젖의 성분 변화가 일어나 자돈은 설사하게 된다.

또 사료섭취량이 많아지면 소화불량성 설사를 하게 된다. 분만돈사에서 육성사로 이동할 경우 사육환경의 급변과 사료의 급격한 교체로 설사

한다. 그러나 육성돈사를 케이지화한 농장에서 분만사에서 약간의 설사를 보이는 돈군도 육성케이지로 옮기면 현저히 좋아지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하였다. 장마철을 지난 후 사료가 흔히 변질되는 경우 이러한 사료를 비육돈에 급여하면 설사증을 쉽게 보게 된다.

치료방법은 사료급여량을 줄여주며 감수성이 우수한 항생제 투여, 지사제의 경구투여, 전해질제 투여, 비타민제 급여등을 들 수 있다. 항생제는 경구투여가 바람직하며 사료에 혼합투여하거나 음수에 타서 투여한다. 비육돈의 경우 지사, 정장, 독소흡착제인 카보폴비트의 투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 4. 전돼지가 동시에 설사할 때

비육 말기의 규격돈, 후보돈, 모돈 및 옹돈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증을 보이지 않는다. 전염성 위장염(T.G.E), 돼지 유행성 설사증(P.E.D.), 혹은 변질된 사료를 급여하였던가 하절기에 변질된 물을 먹었을 경우 설사할 수 있다.

전염성 위장염에 감염되면 모돈은 구토와 설사를 하며 수유모돈은 젖의 생산이 현격히 감소된다.

전돼지가 설사할 경우 원인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만약 원인이 전염성 위장염(T.G.E)으로 진단되면 "월간 양돈 85년 11월호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 5. 맺음말

양돈장에서 발병율이 가장 높은 설사증을 일령별로 원인과 대책을 소개하였다. 돼지 설사증은 돈사내 청소, 청결, 보온, 소독등을 철저히 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 분만전 모돈에 대장균 백신 접종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질병 발생시 초기에 감수성이 우수한 항생물질의 투여, 보조치료제 사용등으로 빠른 회복을 유도하여 돼지 설사증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